

전 남

수익 들인 아파트 진입도로 특혜 의혹

도로변 토지 소유주 무안군의원, 수십억원 반사이익 주민 “도시계획에도 없고 인도 없어 보행 불편” 논란

무안군이 최근 수익원의 열세를 들여 성내 주공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했으나 ‘특혜 도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도시계획에도 없는데 도로변 토지가 무안군의원 정모 의원 소유로 알려지면서 도로개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안군은 총공사비 2억4100여만원(보상비 포함)을 들여 지난 6월 무안읍 성내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해 오는 17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입도로는 폭 7m·길이 78m 규모로 상·하수도 및 우·수관로를 갖추고 있다.

군은 공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정모 의원에게 1억1000만원, 주민 정모씨에게 98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했다. 편입토지는 526㎡로, 평당 120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에도 없는 ‘특혜 도로’라는 지적이다. 불과 40m떨어진 인근에 2002년 5월 31일 고시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안을 성내 주공아파트 어린이들의 등·하굣길로 개설된 도로가 보행자 인도조차 없고, 주공 아파트 어린이집 건물 등이 도로접근을 막고 학교와 도로가 직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게다가 도로변 양쪽 전체를 정모 의원과 주민 정모씨가 소유하고 있어 ‘어린이 등굣길을 가장한 자가상승을 노리는 택지개발용 도로개설’이라는 잡음이 일고 있다. 군 민원담당은 성내 주공아파트 어린이 등·하굣길 민원과 관련, “단 한 건도 민원이 접수된바 없다”고 전했다.

진입도로 개설 이후 지가가 경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이전에 평당 90~100만원에 거래되던 지가가 공사 이후 25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정모의원의 경우 총 1683㎡ 규모 이던 소유토지중 266㎡가 편입돼 현재 1417㎡가 남아 수십억원의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2월 8일 무안읍 하수관 교체 공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흙)을 무안군 예산으로 정모 의원 토지에 무상으로 성토해줬고, 지역개발과도 같은 사정 계획에 의해 처리해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공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은 “보행자 인도가 없고 어린이 등·하굣길이 웬 말이냐”라며 “땅을 만들기 위해 인도가 없고 도로개설이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사회단체 대표는 “군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주민의 열세를 자기 재산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모의원은 “의원으로서는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당시 성내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 어린이 등·하굣길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도로”라고 해명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수익원의 사업자가 수반되는 도로개설 사업이 담당자의 지지에 따라 좌지우지 하겠다”며 “전일제가 추진한 사업을 진행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지도~임자 연륙교 건설 공사 본격화

신안군 공사비 20억 확보

신안군 지도와 임자도를 잇는 연륙교(조감도)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신안군은 “지도~임자간 연륙교 건설 공사가 올해 공사비 20억을 확보해 2013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지도~임자간 연륙교 건설 공사는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됐으나,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우선 순위에 밀려 착공이 늦춰졌다.

이에 신안군은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2012년 공사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억원이 확보된 이후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 재조사와 총사업비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하느라 시일이 소요됐으나 지난 6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대한발주 요청을 해 대안 낙찰자 결정으로 사실상 착공 수순에 들어갔다.

지도~임자간 연륙교는 국도 24호선으로 연장 4.99km(해상교량 2개소 1.92km·접속도로 3.07km)로 평면 2차로의 사상교, 현수교로 시공된다. 소요사업비는 17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연륙교가 완공되면 연간 47만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의 육지나들이 불편이 해소되고 농·수산물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전천후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시의회, 사회적 기업 육성 팔걷었다

목포시와 시의회가 목포 관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목포시는 시 교육청, 농업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함께 12일 시청 상환실에서 사회적 기업 3개 단체와 공공구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시는 7개 업체서 총 17억3600만원 여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교육청은 초·중 등 47개교의 체험·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 용역을 지원하게 된다. 농업 유통센터에서는 매장내 115

㎡의 공간을 할애해 3개 업체의 생산제품 전용 판매장도 제공한다.

이날 시는 시청사 1층 현관 로비에 9개 업체에서 생산한 50여개 품목을 전시·판매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에 일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여수시, 전남도 수산분야 평가 상 휩쓸어

여수시가 전남도 주관의 수산분야 평가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었다.

여수시는 최근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수산분야 평가에서 2012년 수산경영평가 대상과 2012년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여수시는 수산경영평가 부문에서 대상 등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기관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수산경영평가 평가에서 시는 기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 이익창출을 위해 ‘여수 녹색별치주식회사’와 ‘여수 새고막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산물 유통·판매 시스템의 선진화를 앞당긴 점 등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수산경영평가에서 우수상은 완도군(시상금 5000만원), 장려상은 진도군(시상금 3000만원)이 각각 수상했다. /여수=임문택기자 mtim@



목포 복지재단 후원자 감사 음악회

목포 복지재단(이사장 이혁영)은 최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각계각층의 후원자 7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감사의 뜻을 전 달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목포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목포대 길애령 교수, 김철용 교수 등이 무대에 올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633@

K-water, 장흥·완도·진도 상수도 20년간 통합 운영

오늘 3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오는 2017년부터 장흥군과 완도군, 진도군 등 전남 도내 3개 군의 상수도를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간 통합 운영한다.

K-water(사장 김건호)는 장흥군·완도군·진도군 등 3개 지자체와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K-water 전남지역본부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실시협약은 지방과 광역 상수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자체간 통합 운영은 내년부터 5

년간 준비단계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참여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로부터 243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K-water는 운영효율화 사업을 통한 유수율(有收率=수돗물 총공급량중 사용료를 받는 양의 비율) 제고 등으로 372억원(20년간)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총 615억원의 상수도 통합운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ater는 상수도 시설개선에 소요될 1147억원을 연차적으로 선(先)

투자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한편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감시·제어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등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해 유수율을 2017년까지 평균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3개군 유수율은 장흥 57.4%, 진도 47.5%, 완도 41.9%로 평균 48.9%에 불과하다.

김건호 사장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은 개별 지자체간 중복투자와 지역간 서비스·요금격차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 8개 축협 ‘녹색한우’ 최우수 브랜드 선정 장관 표창

영암축협 등 전남 8개 축협이 공동으로 참여한 육성한 ‘녹색한우’(대표 정찬주)가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2012년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농식품부장관 상장과 함께 14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브랜드 축산물을 운영하는 47개소(한우 28·육우 1·돼지 18)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쳤다.

‘녹색한우’는 품질균일성, 물량공급능력 등 브랜드수준과 달성률, 성장률 등 사업실적 전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영호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녹색한우’는 설립 초기부터 한우의 고품질 생산전략을 꾸준히 구사해



12 축산물 브랜드사업 연

은 조합공동 사업법인으로 자체 가공·직접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과정의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출범한 ‘녹색한우’는 회원농가 1228명이 7만135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매출액 280억원의 전남 한우 광역브랜드 경

영체이다. 지난 4월에는 미국 H-마트와 입점계약을 체결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녹색한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광주 롯데백화점에 입점한데 이어 내년초 목포시에 ‘녹색한우’ 직영 판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광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